

광주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난다

내달부터 학원 심야교습 제한

市-5개 자치구, 교육네트워킹 활성화 등 기반 조성 나서 구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 국제교육도시聯 가입도 추진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일-학습-여가가 하나로 연계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를 활성화시켜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광주시는 특히 광주가 문화·교육 중심 도시임을 적극 알리고 선진 교육도시와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 가입을 추진키로 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올해 국비 1억원, 시비 3억7천만원, 구비 7억6천만원 등 모두 12억3천3천만원을 들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올 사업비 규모는 지난해 6억3천만원(시비 3억7천만원, 구비 2억6천만원)에 비해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특히 자치구의 투자규모는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는 올해 학교 등 지역시설과 거점학습센터를 통해 학습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전생애 단계별 순환학습 모형을 개발, 생활형 평생학습체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각 구도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중점 개발해 민간·시민단체 주도형 학습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구별 중점 추진 사업은 동구의 경우 여성·경로대학과 학교시설 연계

프로그램 운영, 학습동아리 활성화, 서구는 다문화가정 및 전문화체협 프로그램, 행복서구 아카데미와 거점 학습센터(3~5개소) 운영, 남구는 주민자치센터별 지역특화프로그램 개발과 평생학습사 양성, 다문화 네트워크 동아리 육성,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지원 등이다.

또한 북구는 외국인과 함께 하는 다문화나눔프로그램과 도서관과 연계한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학습시간 관리제 운영 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광산구는 영어이야기 대회와 평생학습프로그램 경연대회, 어드벤처포럼21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한다.

광주시는 '21세기형 지역인재양성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2006년부터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 5개년 기본계획(사업비 36억원)을 수립해 사이버학습관 및 거점학습센터 등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시는 특히 이같은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1994년 창립된 국제교육도시연합회는 세계 지방자치단체들간 교육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40개국 370여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국내에서는 순천시와 창원시 등 2개 도시가 가입했다.

시 관계자는 "창조성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 시민주도형 평생교육체제 정착과 이를 바탕으로 한 도시 경쟁력 높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

광주시의회 조례 개정

5월부터 광주 지역 초·중학생은 밤 10시까지, 고등학생은 밤 12시까지 학원 교습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 시간을 넘겨 운영하다 적발되는 학원은 처벌을 받게 된다.

광주시의회는 28일 제167회 임시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교사회위원회 6명의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내용은 다음달 2일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즉시 시행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규정을 어긴 학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는 만큼 시교육청도 조만간 이 규정을 어긴 학원들을 대상으로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의회는 당초 초·중·고등학생 구분 없이 모든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시교육청이 발의한 조례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이 맞서자 최근 각계 의견을 수렴해냈다.

김성숙 광주시의회 교육사회위원장장은 "다음달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교사·학부모·학생 등을 대상으로 광범

위한 여론을 수렴한 만큼 (조례안 처리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모아져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회가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광주지역 60개 초·중·고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2만6천289명을 대상으로 학원심야교습시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 대상자의 82.9%(2만1천814명)가 학원의 심야 교습 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고 적정 제한 시간으로는 초·중·고교는 밤 10시까지, 고등학교는 자정까지로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김지용기자 dok2000@

광주시 5월 한달간 동전교환운동

광주시가 5월 한 달동안 '법국민 동전교환운동'을 벌인다.

시는 28일 "각 가정과 사무실의 서랍이나 저금통에서 잠자고 있는 동전을 정상 유통체로 유입시켜 연간 200억원에 달하는 동전 발행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작은 동전 큰 기쁨 법국민 동전교환운동'을 광주에서도 적극 전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환 대상은 10원, 50원, 100원, 500원짜리 모든 동전이며, 시·구청 민원실과 동주민센터, 금융기관 등에서 지폐로 교환해준다. 교환이 불가능한 자투리 동전은 별도의 모금함을 마련, 전액 어린이재단에 기부한다.

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캠페인에 발맞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정후식기자 who@



U대회 광주유치 결의대회
광주시교육청은 28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광주 유치 기원 및 제37회 전국소년체전 성공 개최 결의대회'를 가졌다. 행사에 참가한 금구초등학교 학생 70여명이 오카리나 공연을 펼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5·18 체험행사 10일~12일, 17일~18일 두차례 옛 전남도청·상무대 영창 등서

5·18 민주화운동 제28주년 기념 행사 위원회는 오는 10일~12일, 17일~1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옛 전남도청, 상무대 영창, 영화 '화려한 휴가' 세트장 등에서 5·18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체험행사는 80년 오월 당시 광주시민들이 실천했던 나눔과 대동의 정신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리자

는 취지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행사 당일 오전 옛 전남도청에 모여 5·18 역사기행 선서 및 다짐의 시간을 가진 뒤 '화려한 휴가' 세트장(북구 오룡동)에 들러 5·18 당시 시민군이 돼 도청 사수 체험을 한다.

이후 상무자유공원 내 상무대 영창 체험 및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망월 묘역순례를 하고 수료식 행사를 갖는다. 참여를 원하는 개인

및 단체는 내달 2일까지 홈페이지(www.518-28.org)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자세한 문의는 062-224-0518. 행사위 관계자는 "5·18을 체험하면서 당시 광주시민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오늘날의 5·18 정서에 맞게 재구성해 5월 정신을 다시금 고취시키는 계기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중형기자 golee@

고철·페타이어로 만든 로봇 보러 오세요

폐자재나 고철, 망가진 기계 부품 등을 이용해 만든 '정크아트(Junk Art) 로봇 체험전'이 다음달 2일부터 열릴 광주시 북구 오룡동 광주디자인센터에서 열린다.

광주시와 (재)광주디자인센터(원장 이봉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재활용 예술작품인 정크아트 로봇을 어린이들이 직접 만지고 타보면서 재생과 환경보존의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고철과 페타이어,

**광주디자인센터서
내달 2일부터 열릴간
정크아트 로봇 체험전**

폐경운기 등 고철을 이용해 만든 동물로봇과 곤충로봇을 전시한다. 관람객들이 정크아트 로봇에 색을 입히거나 직접 종이로 로봇을 만드는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 밖에 센터 이벤트 홀에서는 전시기간 하루 3차례 애니메이션이 상영되고 어린이 장거

자랑대회(10일),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전시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체험프로그램은 유료로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르고 버려진 물건으로 만든 예술작품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는 체험학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디자인센터는 전국 최초의 어린이디자인체험관인 '디키발'을 운영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어린이 통학버스 조례제정 급하다

광주시민센터 토론회...규정 위반 제재 강화 안전 대책 세워야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률 개정 및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광주시민센터 어린이안전운동본부(본부장 장연주)와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누리사업단(단장 한혜경)은 29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기조발제에 나서는 장연주 본부장은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의 경우 통학

버스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제재 조항이 미비하고, 사실 확인은 공식 집계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광주시와 5개 구청이 관련 조례를 만들어 근본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조례 제정이 쉽지 않은 상태다. 개정안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신고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의 무 위반시 처벌 강화 ▲어린이 통학버스 유사 도장 및 표지 금지 의무 위

반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는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돼 있으며, 어겼을 때 처벌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다소 약하다. 광주시내 사립유치원의 통학버스 중 관계기관에 신고한 차량은 195대 중 12대로 신고율이 9.3%에 불과하며, 보육시설의 경우 1천45곳 중 16.5%인 172대만이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장수온돌침대

최신 2008년 제품 장수온돌침대
신뢰할 수 있는 장수온돌침대

시 설이 빅토리 빅서리

하이파하생용가구

모디쉬갤러리 통광주점 TEL. 062-252-3001~2

모디쉬갤러리

사롱 4인식탁 ₩ 690,000 (최소한정)

모디쉬갤러리 통광주점 TEL. 062-252-3001~2